

카타르 아시안컵 내년 1월 열린다...클린스만 첫 시험대

카타르축구협회 확정...내년 1월12일 개막
한국, 1960년 이후 아시안컵서 우승 못해

아시아 축구 국가대표전인 2023 아시안컵이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임명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카타르축구협회는 아시안컵이 내년 1월12일 개막해 2월10일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고 1일(한국시간)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밝혔다. 2023 아시안컵은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개최권을 반납했다. 카타르가 지난해 10월 한국 등과 경쟁 끝에 개최권을 가져갔다. 아시안컵은 2011년 대회부터 4년 주기로 1월에 개최돼 왔다. 아시안컵 우승은 한국 축구의 숙원이다. 한국은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면서도 아시안컵에서는 1956년과 1960년 이후 우승하지 못했다.

클린스만 감독 역시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뮐러 대한축구협회(KFA)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축구회관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여러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 지배적이다. 지도자 공백이 길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전술에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뮐러 위원장은 이를 설득력 있게 반박하지 못했다. 클린스만 감독을 보좌할 코칭스태프 구성 역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한국은 1972년, 1980년, 1988년, 2015년에 준우승에 그쳤다. 직전 대회인 2019년 대회에서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8강에서 카타르에 졌다. 한국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64년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할 예정이다. 뉴스

선임에 달린 물음표...내주 입국 클린스만 직접 해소하나

마이클 뮐러, 클린스만 의문점 해소 실패
전술 역량·한국 축구 청사진 등 제시해야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물음표가 붙었다. 전술 역량과 선임 과정 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 축구팬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클린스만 감독 본인의 명쾌한 답변이

절실히 보인다.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주 중 입국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클린스만 감독 데뷔전은 오는 24일 울산에서 열리는 콜롬비아와의 친선 경기다. 클린스만 감독이 입국하면 한국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질 전망이다. 전임 파울루 벤투 감독도 기자회견을 통해 의문점을 일부 해소했다. 벤투 전 감독은 2018

년 8월17일 선임 사실 발표 후 4일 뒤인 21일 신문로 축구회관을 찾아 정몽규 회장과 축구협회 임원진을 만나고 22일 K리그1 FC서울-포항스틸러스전 관전 후 23일 고양 MVL 호텔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당시 벤투 전 감독은 중국리그에서의 실패 등에 관한 비판에 반박하고 자신의 축구 철학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클린스만 감독 역시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뮐러 대한축구협회(KFA)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축구회관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여러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 지배적이다. 지도자 공백이 길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전술에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뮐러 위원장은 이를 설득력 있게 반박하지 못했다. 클린스만 감독을 보좌할 코칭스태프 구성 역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한국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 2018년 대표팀 감독 후보군에 들어갔을 때 거절했던 이유, 향후 한국 축구를 발전시킬 청사진, 벤투호와의 차별화 등도 클린스만 감독이 답변해야 할 항목이다. 뉴스

영암군민속씨름단 문경장사씨름대회 씨름판 평정

문경장사씨름대회 3관왕 ▲한라장사 최성환 ▲백두장사 김민재 ▲단체전 우승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충북 문경시에서 열린 '2023 문경장사씨름대회'에서 또다시 3관왕을 차지했다. 김기태 감독이 이끄는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금강급(90kg이하)에서 최정만 장사가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지만 뛰어난 경기력으로 다음 대회를 기대케 하였고, 한라급(105kg이하)에서는 최성환 장사가 파죽지세로 결승까지 올라온 박민교(용인특례시청)를 3-1로 제압하고 우승하여 개인 통산 11번째 한라장사에 등극하였다. 대회 마지막날은 영암군민속씨름단 잔치였다. 백두장사 결승전 직전 치러진 단체전

결승에서 MG새마을금고를 4-2로 제압했고, 이후 백두급(140kg이하) 결승에서는 씨름 괴물 김민재 장사가 고교시절 라이벌 최성민과의 대결에서 3:1로 승리하며 개인 통산 4번째 장사등극과 함께 민속씨름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이로써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총 68회 우승(장사 56회, 전국체전 금메달 4개, 단체전 8회)을 달성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고 씨름단임을 입증하였다. 김기태 감독은 "설날대회 이후로도 선수들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분위기가 더 올라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중이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을 아낌없이 응원해주는 영암군민께 보답하기 위해 최고의 기량을 펼쳐 영암군 알리미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전남 드래곤즈 전천후
미드필더 조지훈 영입

전남드래곤즈(이하 전남)는 미드필더 조지훈(FA)을 영입했다. 191cm 80kg인 전천후 미드필더 조지훈은 높은 제공권과 날카로운 공·수 전환 패싱력으로 전남의 중원과 수비에 무게감을 더해줄 것으로 평가했다. 연세대를 거쳐 2011년 수원삼성에 입단한 조지훈은 상주, 강원을 거쳐 2021년 태극 치앙라이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다시 K리그로 돌아온 조지훈은 2022년 FC서울에서 활약했다. 전남 유니폼을 입게 된 조지훈은 "지난 시즌 전남에 경기를 모두 찾아왔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수 전환하는 패스에 자신있다. 그리고 고참으로써 후배들을 잘 이끌면서 전남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기대감이 가득한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정현욱 코치 "김광현·양현종 등 베테랑 페이스 좋다"

"투수들, 컨디션 100%로 올라오면 더 좋은 투구 할 것"

미국 애리조나주 투수에서 진행된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합동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정현욱 대표팀 투수코치가 투수진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정현욱 코치를 비롯한 대표팀 '선발대'는 1일 오전 6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투수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한 대표팀은 전원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애초 이날 오전 투수에서 훈련한 대표팀 모두가 돌아오고, 소속팀에서 컨디션을 조절하던 두 메이저리거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이날 오전, 오후에 입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강철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일부 인원의 귀국 시간이 미뤄졌다. 투수에서 로스 엔젤레스로 이동하려던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된 여파다. 이 감독에 앞서 입국한 정 코치는 "생각보다 날씨가 추워서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전지훈련 막판에 투수진의 페이스가 전반적으로 올라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대표팀은 따뜻한 포근한 날씨를 기대하며 투수에 캠프를 차렸지만, 기대와는 달랐다. 본격적으로 첫 훈련이 시작된 15일에는 투수 지역에 눈이 쏟아졌고,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22일에는 거센 비와 강풍이 몰아쳐 KT와의 연습경기가 하루 미뤄졌다. 26일로 예정됐던 LG 트윈스와의 연습경기는 아예 치르지도 못했다. 대표팀은 투수에서 치른 국내 팀들과 4차례 연습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다. 타선은 대폭발했지만, 투수진은 아직 시간이 필요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감독은 투수들의 더딘 페이스에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전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끔 중요한 상황에서 2월 26일로 예정됐던 LG와의 연습경기 가 취소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정 코치는 "최대한 실전을 많이 던지고 있어

아하는데, LG와 연습경기가 취소돼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WBC 공인구에 적응이 덜 돼서인지 선수들이 변화구 제구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 었다"면서도 "연습경기에서 피안타가 조금 많았지만 정타가 적었던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땅볼 타구가 코스가 좋아 안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돌아봤다. 김광현(SSG 랜더스), 양현종(KIA 타이거즈), 이용찬(NC 다이노스) 등 베테랑들이 좋은 컨디션을 보인 것에 정 코치는 안도했다. 정 코치는 "김광현, 양현종, 이용찬 등 베테랑들의 컨디션이 좋아서 다행이다. 고무적인 컨디션도 괜찮다"면서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은 앞서서 WBC 개막 시기에 맞춰 준비했다. 반면 젊은 투수들은 원래 이맘 때 공을 던지는 시기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느껴 페이스가 조금 늦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WBC 개막이 다가오면 젊은 투수들도 컨디션이 충분히 올라갈 것이라고 정 코치는 기대했다. 2009년 WBC에 대표팀으로 나서 한국의 준우승에 힘을 보탠 정 코치는 "당시 나도 대회 직전까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대회가 시작되니 좋아지더라. 믿고 있다"며 "선수들의 컨디션이 100%로 올라오면 더 좋은 투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젊은 투수들도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적절히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배운 것이 있을 것이다. 다음 대회가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항공기 결항으로 이날 오후 뒤늦게 합류하는 투수들이 적잖다. 대표팀은 당장 2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회복 훈련을 하고, 3일 SSG 퓨처스(2군)팀과 같은 장소에서 평가전을 치른다. 정 코치는 "당장 3일에 연습경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후에 도착하는 선수들이 오랫동안 베스로 이동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와야한다"며 "일단 오전에 들어온 선수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 같다. 선수들의 투구 이닝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고진영이 지난 2022년 3월6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골프 태극낭자들, 우승 단골 대회서 부활할까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오늘 개막

지난해 6월 KPMG 여자PGA 챔피언십에서 전인지가 우승한 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태극낭자들이 다시 우승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 LPGA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이 다음달 2일부터 나흘간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 클럽 탄중 코스(파72)에서 열린다. 총상금은 180만 달러(약 23억원)다. 세계 5위 고진영, 8위 전인지, 9위 김효주 등 세계 랭킹 10위 내 선수들을 비롯해 한국 선수 12명이 우승에 도전한다.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은 한국 선수들에게는 반가운 대회다. 2009년 신지애를 시작으로 박인비(2015·2017년), 장하나(2016년), 박성현(2019년), 김효주(2021년), 고진영(2022년) 등이 줄줄이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우승자인 고진영이 이번 대회를 앞

두고 부활을 알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손목 부상 등으로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고진영은 직전 대회인 혼다 LPGA 타이랜드에서 공동 6위에 오르며 지난해 7월 메이저대회 아문디 예비 챔피언십(공동 8위) 이후 7개월 만에 톱 10에 진입했다. 이 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고진영과 김효주 외에 전인지, 최혜진, 지은희, 김세영, 안나린, 김아림, 이정은, 최은정, 양희영, 신지은이 우승을 노린다. LPGA투어에서 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태극낭자들이 낭보를 전해줄지 주목된다. 지난해 6월 전인지가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후 한국 선수들은 18개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 이는 2007년 7월 에비앙 마스터스부터 2008년 5월 코닝 클래식까지 27개 대회 연속 무승 이후 15년 만에 나온 불명예 기록이다. 역대 최다 무승 기록은 1998년 8월 뒤모리에 클래식부터 1999년 6월 웨그먼스 로체스터 인터내셔널까지 30개 대회 연속 무승이다. 뉴스

'태극마크' 토미 에드먼, 어머니·외할머니에게 '한국문화 배우기' 노력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 국적이 아닌 선수로는 최초로 한국 야구 대표팀에 승선한 한국계 메이저리거 토미 현수 에드먼(28·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한국 문화에도 한층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에드먼이 한국 문화를 익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한국 출신 이민자인 곽경아씨와 그의 외할머니다. 그는 소속팀 스프링캠프에서 훈련하던 에드먼은 WBC 대표팀 합류를 위해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한국계지만, 에드먼이 한국 땅을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드먼은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에 와보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드먼은 한국 출신 이민자인 어머니 곽경아씨와 대학 야구 코치로 활동하던 미국인 아버지 존 에드먼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WBC에서는 부모의 조국 중 한 곳을 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중순부터 에드먼에 한국 대표팀 합류를 요청했고, 에드먼은 이를 받아들였다. 뉴스